

# 청소년들이 읽을만한 책

## 출판협회 선정 '이달의 청소년도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가 선정하는 '이 달의 청소년도서' 92년 12월~93년 3월분으로 18종 25책의 도서가 뽑혔다. 분야별로는 문학(11종) 순수과학(3종) 역사(2종) 사회과학(1종) 철학(1종). 재단법인 한국출판공고(이사장 정진숙)는 총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정도서 1종당 300부씩을 구입, 전국 각 지방의 공공도서관 132곳을 비롯, 직업훈련원·농민상담소·청소년선도기관·소년원·문화원 및 마을문고 300여곳에 기증했다. 다음은 이번에 선정된 책들의 간략한 해제.

### 공산주의의 종언

A. 야코블레프 지음/김병린 외 옮김



약 10년전까지 공산주의를 맹신하던 학자가 지난해 6월 10권의 저서와 4백여편의 평론을 저술한 결과 공산주의의 종말을 선언한 이 책은, 레닌으로부터 고르

바초프에 이르기까지 74년간의 공산주의 역사를 담았다.

73년까지 13년간 구소련의 당중앙위원회에 있으면서 4년간 당선전부장직을 맡았던 경력의 저자는 당고위직에 대한 '충성불충분'이 죄명이 돼 한때 좌천되기도 했는데, 고르비의 최측근자였던 그는 공산주의의 허황과 공상, 시민사회에 대한 부정, 폭력 등을 예리한 논리와 필치로 파헤치고 있다.

나남/A5신/330면/6500원

### 이야기 미국사

이구한 엮음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의 원주민의 역사를 비롯해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그리고 1,2차 세계대전을 겪고 이제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초대국으로 성장한 5백년 미국의 역사를 흥미롭게 구성한 책.

'콜럼버스 이전의 아메리카' '식민과 독립의 시대' '대륙국가 형성의 시대' '민중화 산업화 시대' '열전시대' '발전과 긴장의 시대'로 크게 나뉘어 미국의 전체 역사를 시대별로 정리한 이 책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미국사를 차근차근 짚는 읽는 재미를 안겨준다.

청아/A5신/534면/7000원

### 서편제

이청준 지음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소리꾼 남매의 한을 그린 연작 「서편제」 「소리의 빛」 「선학동 나그네」 「해변 아리랑」 등 8편으로 구성됐다. 좋은 소리를 위해 딸의 눈을

멀게 한다는 즐거리의 이 소설은 영화로 제작돼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소설을 "우리 삶에 대해 말로 꾸며지는 일종의 꿈"이라고 정의내리는 작가는 이 연작을 "삶에 대한 무력하나마 허심탄회한 꿈이야말로 저간의 언어질서를 기초로한 우리의 생명과 삶의 자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학적 확인"이라고 자평.

열림원/A5신/304면/5000원

### 꿈치

톨스토이 지음/이향희 옮김



바닷물고기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작은 것 혹은 적은 것이란 뜻을 지닌 책제를 단 이 책은,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등의 소설로 너무 유명한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가 만년에 쓴 우화 40편을 모아 한데 묶은 이색적인 우화집.

질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풍자와 해학이 어우러진 세계적 작가의 "마음을 울려주는 순수하고 높은 이상, 소박한 표현 속에 넘치는 깊은 지혜"(로망 롤랑)가 담긴 우화는 어린이들에게는 지극히 깨끗한 동심을, 어른들에게는 삶의 지혜와 감동을 선사한다. 4·6판 하드커버에 깔끔한 편집도 돋보인다.

서연/A5신/148면/4500원

### 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황영조 지음



지난해 개최됐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거머쥐었던 마라토너 황영조 선수의 성공담을 담은 책으로, "고통이 심할 땐 차속으로 뛰어들고 싶

을 정도"의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마라토너의 고독한 경쟁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일장기 말소사건으로도 기억되는 손기정옹의 베를린 제패 이후 56년만에 민족의 한을 풀어준 황선수의 이 수기는, 운동선수로서 또한 인간으로서의 지칠 줄 모르는 끈질긴 승부 근성을 엿보게 한다. 우승장면 등을 담은 원색화보가 함께 실렸다.

일빛/A5신/200면/4500원

### 천연기념물, 동물편

원병오 지음



한국자연보존협회장으로 국내조류학계의 대부적인 저자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의 분포와 현실, 그리고 서식지와 번식 형태 등을 소개한 책. 「한국의 천연

기념물(조류편)」과 「한국의 새, 천연기념물」을 펴낸 바 있는 저자는, 급격한 환경파괴로 인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생태계 속에서의 천연기념물의 변화와 실태를 이번에 묶어낸 것이다.

동물 전반에 걸쳐 있는 이 책에서 어류부분은 서울대 명예교수 최기철박사가, 곤충류는 신유항교수가 각각 맡아 집필했다. 1장에서는 희귀 및 절종위기 야생동물의 실태와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2장에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에 대한 글을, 3장에서는 조수류의 보호에 대해, 그리고 4장에는 우리나라의 동물 천연기념물을 조별, 포유류, 어류, 곤충류별로 다루었다.

대원사/A5신/312면/15,000원

### 돌의 소리

이양지 지음



서른일곱의 나이로 요절한 재일동포작가의 유작. 재일동포 2세로 82년 「나비타령」으로 데뷔한 뒤 「劬」「그림자 저쪽」을 발표했고, 89년에는 「由熙」로 제

100회 아쿠다가와상을 수상해,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화제작가로 떠올랐던 작가는 이 작품을 끝으로 작년 요절했다.

모국의 대학에 유학한 한 재일동포 대학생의 이야기로 꾸며진 소설과 함께 90년 한일문화교류기금이 초청한 강연회에서 작가가 직접 원고를 써 발표한 '나에게 있어서의 母國과 日本'이 자료로 묶여져 있다.

삼신각/A5신/260면/5000원

### 다시 만날 그날까지

박정희 지음



한양여전 교수이기도한 시인의 6번째 시집으로 제29회 한국문학상 수상작. 시인은 58년 「현대문학」의 추천으로 등단했고, 시집으로 「內室」「駐宅地」「문풍지」

「술래의 편지」「푸르른 날의 그리운 점 하나」를, 수필집으로 「그대 내 곁에 영원히」를 펴낸 바 있다.

아픔과 절곡의 통한의 세월인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분단의 시대를 지나며 임선달네 가족 4대가 겪는 한서린 가족사를 1부 '길주사람' 2부 '분단의 아픔' 3부 '새로운 세상' 4부 '그 상상의 끝' 5부 '다시 만날 그날까지'로 구성하고 있다.

담계/A5신/200면/3000원

### 미래과학총서 (1~5)

지학사 기획/과학세대 엮음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지배할 첨단미래과학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내일의 세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획한 청소년과학총서로 과학의 대중화 작업을 목표로 삼

는 출판연구모임인 '과학세대'가 엮은 것이다. 과학세대는 무크 「과학세대」를 비롯해 「자연의 종말」「해커」 등의 책을 펴냈다.

제1권은, 「미래를 지배할 신소재」 제2권은 「유전공학의 놀라운 세계」 제3권은 「컴퓨터를 만든 천재들」 제4권은 「생물은 모두 시계를 갖고 있다」 제5권은 「상대성 원리와 우주과학」. 책의 편집은 제1권을 예로들어, 제1장 신소재란 무엇인가 제2장 꿈의 기술 초전도체 제3장 마법의 빛 등의 형식으로 이뤄져 있

## 인간의 나무 (1·2)

패트릭 화이트 지음/김용철 옮김



20세기 호주문학의 대표적 인물로 불려지는 작가의 장편소설 「The Tree of Man」의 81년 발행 펄컨판을 저본삼아 옮긴 번역본이며, 역자는 현재 성균관대 영문과교수. 이 소설은 호주의 미개림에서 한 가정

이 이뤄나가는 두 남녀의 이야기다. 그들에게 자식이 생겨 가족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미개림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어가는 가운데 그들에게 닥쳐오는 온갖 사건과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데, 1권은 1장부터 16장까지, 2권은 17장부터 26장까지 담고 있다. 또한 2권의 권말에는 작가의 창작 활동과 업적에 중점을 둔 작가론과 작품론, 작가연보가 더해졌다.

을문출판사/A5신/428, 354면/5500, 5000원

## 마음에 타는 불 무엇으로 끄려보고

윤청광 지음



출판인이면서 불교신문사 논설위원이기도 한 저자가 집필한 불교방송의 라디오 드라마 '고승열전'의 극본을 소설화한 것으로 우리 현대 불교사에 고승으로 자리하고 있는 청담 큰스님의 일대기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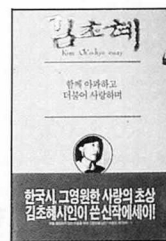
청담은 왜색불교를 몰아내고 우리불교의 청정한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함을 강조하며 불교정화운동에 앞장섰던, 조계종 총무원장과

해인사 주지를 거쳐 조계종 종정에 추대된 인물. 진정한 구도의 길을 보여주는 이 소설을 통해 "마음을 알아야 한다. 마음은 생각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지만, 이 마음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된다.

언어문화사/A5신/290면/4800원

## 함께 아파하고 더불어 사랑하며

김초혜 지음



베스트셀러시집 「사랑 곳」으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여류시인이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이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문학적 노력의 한 방편으로 쓴" 에세이집. "행복의 확인은 언제나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발견할 줄 아는 눈부터 지나는 것"이라는 등 인생살이에 대한 담담한 글들이 수록돼 있다.

'참답게 사는 비경'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리움의 샘' '우리시대의 불행과 희망'으로 장을 나눠 모두 57편의 수필을 실었는데, 삶에 대한 바른 태도와 여성의 문제, 책과 음악, 고향과 시,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시인의 시각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동학사/A5신/262면/4000원

## 현대인의 시민윤리

김태길 외 지음



김태길(철학문화연구소장) 서광조(세종대교수) 최정호(연세대교수) 황경식(서울대교수) 이렇게 4명의 필자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물음인 "나는 누구인가"란 주제로 함께 쓴 철학에세이 모음.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이 되고, 여가를 이용하여 독서도 하고 취미도 살려가며 조용한 나날을 보내는 것도, 비록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조출하고 깨끗한 삶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등 생활인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조언과 지침을 건네주고 있는 책으로 읽힌다.

고려원/A5신/326면/5000원

## 초당

강용홀 지음/장문평 옮김



1921년 미국으로 이민간 재미교포의 자전적 작품으로 20년대 한국의 격변기를 한 소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색적인 풍속소설. 31년 영문으로 미국에서 발표된 뒤 유럽 각지에서 번역출판되었던 이 소설은, "가장 빛나는 동양의 지혜"(버지니아 울프)라는 평을 받으며, 구겐하임 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부인과 함께 번역한 한·중·일의 옛시인들이 실려 있어 한층 깊은 동양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범우사/A5신/420면/7000원

## 세상에서 가장 알고 싶은 이야기

박상률 엮음



'소년 소녀들을 위한 재미있는 과학과 상식 이야기'란 긴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시와 동화를 쓰고 있는 위인이가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기 쉽게 풀어 쓴 것. 바람은 왜 부는지, 부처님은 누구인지, 크리스마스는 왜 생겼는지, 비행기는 어떻게 날 수 있는지 등과 같이 '왜'라고 생각되는 갖가지 일들을 다루고 있다.

조개껍질은 어떻게 생기나를 비롯한 이야기를 담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와 번개와 천둥이 치는 이유 등을 알아본다.

동쪽나라/A5신/256면/3000원

## 히말라야의 새

루디아드 키플링 지음/류시화 옮김



「정글북」의 작가로, 영국작가로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키플링의 대표작 「KI-M」의 번역본. 티벳에서 온 늙은 라마승은 신비의 강을 찾아 여행을 떠나다, 여행 도중에 킴이라는 이름의 한

백인소년을 만나 함께 인도 전역을 여행한다는 게 이 소설의 줄거리.

삶이라는 여행의 진정한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 즉 구도여행을 그린 이 소설은,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고 인간근원에 대한 이해임과 동시에 "동양의 노승과 서양 소년의 우정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불일출판사/A5신/434면/6000원

## 소설 장보고 (1~3)

송지영 지음



천민의 아들로 태어나 신라와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왕국을 건설하고 중앙세력을 전복하려다, 결국 심복에게 암살당한 비운의 인물 장보고의 일대기를 그린 역사인물소설. 신라의 흥덕왕에게 1만명의 군사를 얻어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세우고, 해적들을 소탕하며 군인으로서 상인으로서의 출중한 능력을 발휘했던 장보고의 흥미로운 활약상이 펼쳐진다.

독립운동가로 반체제 언론인이었던 저자가 작고하기 전 신문에 연재했던 소설

호암출판사/A5신/각 344면 내외/각 4500원

## 클린턴

짐 무어 외 지음/김여대 외 옮김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에 선출된 빌 클린턴의 주지사 시절의 활동과 대통령출마, 그리고 선거공약 등을 소개하고 지지하는 내용으로 꾸며진 책. 필자 짐 무어는 "미국이 옛 영광을 회복하고 가능성을 약속받는 유일한 길은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오랜 정치적 분열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클린턴은 이같은 신화를 창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밝힌다.

이 책은 12년간의 공화당 아성을 깨려는 민주당의 젊은 기수 클린턴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백악관을 향해가고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클린턴의 연설문이 권말부록.

세경사/A5신/274면/5000원